

◆ 특 집 ◆

重電機器의 需給動向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이 우 공

1. 서 론

최근의 國際環境은 電機工業이 전자공업, 기계공업 등과 믹스되면서 電氣工業인지, 電子工業인지 분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술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한계가 불명한 것이 오늘날의 전기공업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技術保護主義를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들에게 과거에는 댓가만 지불하면 쉽게 기술을 이전해 주던 것을 최근에는 남은 기술 이외에는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고도성장국에는 技術移轉을 철저히 기피하고 있어 電氣分野 技術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이나 신제품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초고압기기나 대용량기기 및 첨단기기 등에 대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과는 技術格差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우리나라 電機工業이 위협을

받고 있다.

메이커의 경우에 있어서는 北美나 유럽은 企業의 대형화와 다국적화 및 M & A로 생산원가 절감, 시장의 선점화 및 기업간의 제휴, 특허의 공유, 공동브랜드 위탁판매, 부품의 공동조달, 기술의 공동개발 등으로 경쟁의 우위권확보와 企業의 世界化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은 전문성 보다는 企業의 多樣化, 국제경쟁 보다는 內需경쟁, 기술개발 보다는 기술도입에 치중하고 있고 시설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공동 技術開發과 기업간의 상호 위탁판매, 부품의 공유, 공동 브랜드 사용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착실한 成長과 선진국들의 현지공장 신·증설로 우리나라를 追越하려 하고 있어 더욱더 우리나라 電機工業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업계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 技術開發 동향이나 신상품개발 및 상품의 패손화 등 경쟁력에 관련된 시장정보에 매우 어두우며, 언어장벽과 마케팅 능

력부족으로 시장개척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 국제적인 시험·검사능력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電機工業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輸出감소는 물론 내수시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2. 需給動向

가. 需給總括

국내 電機工業 시장규모는 '92년에 145억 불 이던것이 '96년에는 241억불로 늘어났으며 '97년에는 255억불로 예상되어 5년 사

이에 1.75배나 늘어나 年평균 11.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總市場規模중 內需市場의 규모는 '92년에는 117억불로 전체의 81.2%를 점유하였으나 '96년에는 193억불로 전체의 80%를 점유하였고, '97년에는 201억불로 전체의 78.8%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어 內需市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內需依存度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輸出은 '92년에 27억불로 전체의 18.8%이던 것이 '96년에는 48억불로 전체의 20%로 늘어났고 '97년에는 54억불로 전체의 21.2%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輸出신장세가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內需市場의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電機工業 전체의 신장율도 '90년까지는 비

(표 1)

우리나라 電機工業의 需給推移

(단위 : 백만불, %)

구 분		'92	'93	'94	'95	'96	'97전망	年평균증가율 ('92-'97)
수요	내 수	11,750	12,976	15,284	18,110	19,255	20,090	11.3
	수 출	2,724	3,050	3,584	4,422	4,827	5,409	14.7
계		14,474	16,026	18,868	22,532	24,082	25,499	12.0
공 급	생 산	10,095	11,148	12,607	14,214	15,896	17,133	11.2
	수 입	4,379	4,879	6,261	8,138	8,186	8,366	13.8
수 출 비 율		27.0	27.4	28.4	31.1	30.0	31.0	
수 입 의 존 율		43.4	43.8	49.7	57.3	42.0	41.0	

(주) 1. 수출비율=수출/생산, 수입의존율=수입/내수

2. 상기 금액은 모듈 및 적산전력량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96전기공업 및 전자공업 통계, '97통산부자료

교적 높은 성장을 하여 왔으며 '92년부터 '95년까지는 연평균 12.0%로 높은 성장을 하여 왔으나 '96년의 6.8% 성장에 이어 '97년에도 5.9%의 아주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電機工業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輸出이 輸入보다 신장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輸入額이 輸出額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輸出이 輸入을 상회하기는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96년의 전체 電機工業 중 重電機器(重電機器와 電線)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인

100억불(重電機器만 27.5%인 66억불)이었고, 家庭用電氣機器 비중은 26.0%인 63억불이었으며, 그 다음이 計測機器로 21.9%인 53억불, 醫療機器도 7.5%인 18억불을 차지하고 있고 照明機器는 3.1%인 7.5억불을 차지하고 있다.

'97년에는 家庭用電氣機器와 醫療機器 및 計測機器의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에 重電機器의 비중이 1.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生産規模는 '97년에 총 171억불로 예상되

分野別 市場規模('96-'97)

(표 2)

(단위 : 백만불. %)

구 분	총 규모		중전기		가전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조명기기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시장 규모	24,082	25,499	9,978	10,906	6,629	6,604	5,273	5,353	1,810	1,856	752	780
비중	100	100	41.4	42.8	26.0	25.9	21.9	21.0	7.5	7.3	3.1	3.1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97), 전기공업 및 전자공업 통계('97), 무역진흥공사 수출입통계('97), 통상산업부 자료('97)

는데 그중 重電機器가 76억불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家庭用電氣機器가 62억불로 36.1%, 計測機器가 21억불로 12.3%, 醫療機器는 7억불로 4.3% 그리고 照明機器는 5억불로 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규모에 있어서도 重電機器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다른 電氣機器들은 감소를 보이고 있어 重電機器産業의 성장율이 다른 電機産業의 성장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97년의 重電機器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電線을 제외한 重電機器의 '97 總 規模는 '96년보다 8.3%가 신장한 66억불로 예상되며 그중 內需가 총 규모의 80.6%인 58억불로 전년보다 5.7%가 증가되고, 生産은 총 규모의 57.7%인 41억불로 전년보다 12.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生産이 內需의 7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3〉

分業別 生産現況 ('96-'97)

(단위 : 백만불. %)

구 분	총 규모		중전기		가전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조명기기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생산 규모	15,895	17,133	6,751	7,576	5,901	6,194	2,016	2,102	703	737	524	524
비중	100	100	42.5	44.2	37.1	36.1	12.7	12.3	4.4	4.3	3.3	3.1

(자료) 〈표 2〉와 동일

'97년도의 輸出은 14억불로 전년보다 20.5%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난 5년간의 年평균 증가율 20.9%보다 다소 낮으며, 輸出은 생산의 33.6%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된다.

輸入은 30억불로 전년보다 3.4%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5년간 年평균 증가율 11.9%보다 아주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貿易收支 개선이 기대된다.

輸入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輸入이 輸出의 2.2배나 되고 있어 '97년에도 '96년과 비슷한 16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에 따른 설비 투자의 감소로 내수증가율도 둔화되어 우리나라 重電機器業界의 發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重電機器 需給動向

(단위 : 백만불, %)

구 분		'92	'93	'94	'95	'96	'97전망	年평균 증가율
수요	내수	3,686	3,904	4,405	4,963	5,468	5,779	9.4
	수출	538	604	743	957	1,154	1,390	20.9
계		4,224	4,508	5,148	5,920	6,621	7,169	11.2
공급	생산	2,495	2,748	2,963	3,100	3,690	4,139	10.7
	수입	1,729	1,760	2,185	2,820	2,931	3,030	11.9

(자료) 〈표 2〉와 동일

나. 輸出入 動向

1) 輸出動向

重電機器의 '96 總 輸出額은 1,154백만불이었으며, 가장 많이 輸出된 품목은 변압기로 417백만불이 輸出되어 전체 輸出의 36%를 점유하였고, 다음이 변환장치로 202백만불이 輸出되어 전체 輸出의 17.5%를 점유하였으며, 배전제어장치가 148백만불로 12.8%, 전동기가 56백만불, 발전기가 55백만불 그리고 전기용접기가 52백만불이 輸出되었고 차단기도 45백만불이 輸出되었다.

'97년 상반기의 品目別 輸出實績을 보면,

總 輸出實績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3%가 감소하였는데 輸出 비중이 가장 큰 변압기가 191백만불이 輸出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9%인 16백만불이 감소되었고 두 번째로 輸出 비중이 큰 변환장치가 84백만불이 輸出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인 13백만불이 감소되었으며, 배전제어장치도 58백만불이 輸出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2%인 23백만불이 감소되어 이 3개 품목이 전년동기 보다 9%의 輸出 감소를 가져왔으며,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품목은 애자류로 74%가 감소되었으며 전기로 및 가열기가 56.5% 감소되고 전압조정기가 18%, 전기로도 13%가 감소되었다.

〈표 5〉

重電機器의 品目別 輸出實績

(단위 : 백만불, %)

구 분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	전동기	발전기	용접기	차단기
'96 총액	417	202	148	56	55	52	45
'97.1-6 (점유율)	191 (35.6)	84 (15.7)	58 (10.8)	33 (6.2)	43 (8.0)	25 (4.7)	15 (2.8)
'96동기 대비증가율	-7.9	-13.7	-28.2	4.4	61.2	-13.4	15.8

전동공구	전압조정기	개폐기	전극·자석	전기로	애자류	기 타	계
39	32	13	6	12	3	73	1,154
20 (3.7)	11 (2.0)	8 (1.5)	3 (0.5)	3 (0.5)	1 (0.2)	41 (7.6)	536 (100)
16.7	-18.0	26.7	-2.6	-56.5	-74.0	13.4	-4.3

(자료) 〈표 2〉와 동일

輸出이 호조를 보인 품목은 발전기가 43백만불이 輸出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1.2%인 17백만불이 증가하였고 전동기도 33백만불이 輸出되어 4.4%인 9백만불이 증가하였으며, 개폐기 및 부분품이 26.7%인 2백만불, 전동공구가 16.7%인 3백만불, 차단기가 15.8%인 2백만불이 증가하였다.

'96년 重電機器의 國別 輸出實績은 總 輸出額 11.5억불의 20.3%인 234백만불이 일본에 輸出되었고 중국에는 總 輸出의 15.9%인 183백만불이 輸出되었으며, 미국에는 總 輸出의 14.3%인 164백만불이 輸出되었다. 또 홍콩에 98백만불, 말레이시아에 94백만불, EU에 36백만불, 싱가포르에 26백만불이 輸出되었고 대만에도 24백만불이 輸出되었다.

'97년 상반기중의 國別 輸出實績을 살펴보면,

총 輸出額은 536백만불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2%가 감소하였으며, 輸出이 가장 많

은 일본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3%가 감소한 105백만불이 輸出되었고 중국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1%가 감소한 80백만불을 輸出하였으며 미국에도 9.9%가 감소한 71백만불을 輸出하였다. 또 홍콩이 17%가 감소한 39백만불, 말레이시아가 28.2% 감소한 36백만불, 싱가포르가 43.8% 감소한 8백만불, 대만도 1.0% 감소한 13백만불이 輸出되었고 EU만이 전년도기와 같은 30백만불이 輸出되었다.

輸出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현지공장의 신·증설로 값싼 제품들을 생산하여 自國需要를 충족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輸出까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제품이 이들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重電機器의 國別 輸出實績

(단위: 백만불)

국 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말레이	EU	싱가폴	대만	기타	계
'96	234	184	164	98	94	64	26	24	264	1,154
'97.1-6 (점유율)	105 (19.6)	80 (14.9)	71 (13.2)	39 (7.3)	36 (6.7)	30 (5.6)	8 (1.5)	13 (2.4)	128 (23.9)	536 (100)
'96동기대비 증가율	-15.3	-10.1	-9.9	-17.0	-28.2	1.0	-42.8	-1.0	4.3	-6.2

(자료) 〈표 2〉와 동일

2) 輸入動向

우리나라 電氣機器의 輸入動向을 살펴보면 '92년에서 '96년까지 4년동안 年평균 輸入신장율은 18.8%로 수출신장을 15.4% 보다 3.4%나 더 높다.

重電機器는 '92년부터 '95년까지 16.3%의 輸入신장율을 보였으나 '96년에는 국내 산업시설 투자감소로 輸入이 줄어들어 3.9%의 비교적 낮은 輸入증가를 보이고 있다.

'96년에는 重電機器의 收入額이 '95년보다 3.9% 증가한 29억불이었으며 電氣機器분야

輸入중 두번째로 輸入이 많았으나 輸入신장율은 가장 낮았는데, 重電機器중 '96년에 輸入이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및 가열기 등의 순으로 輸入이 되었다. 특히 '96년에는 전기로 및 가열기가 輸入이 다소 줄어든 반면에 발전기의 輸入이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 발전기의 輸入은 '95년보다 30%가 증가한 81백만불이나 늘어났으나 반면에 전기로 및 가열기는 '95년보다 40%가 감소한 169백만 불의 輸入이 감소되었다.

〈표 7〉

重電機器의 年度別 輸入現況

(단위 : 백만불, %)

구 분	'92	'93	'94	'95	'96	'97.1.-6
'92	1,729	1,760	2,184	2,820	2,931	1,496
증가율	3.1	1.8	24.1	29.1	3.9	4.9

(자료) 〈표 2〉와 동일

'97년 상반기의 輸入實績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가 증가한 4.9%의 輸入增加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도에 輸入증가율이 높았던 발전기, 차단기, 변환장치, 전기용접기 등의 輸入이 크게 감소된 반면에 배전 제어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애자류 등의 輸入이 크게 증가하였다.

각 품목별 輸入現況을 살펴보면 배전제어 장치가 '95년보다 2.6% 증가한 469백만불이 輸入되었고 다음이 전동기로 '95년보다

11.7% 증가한 370백만불이 輸入되었으며 발전기는 30% 증가한 349백만불, 전기용접기는 1.2% 감소한 316백만불, 변압기가 8.4% 증가한 301백만불이 輸入되어 이 5개품목이 전체 輸入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전기로 및 가열기로 '95년보다 67.1%가 감소한 252백만불이 輸入되었고 변환장치가 43.1% 증가한 195만불, 전극 및 자석이 2.9% 증가한 188백만불, 그외에 전동공구가 72백만불, 차단기가 70백만불,

〈표 8〉

重電機器의 品目別 輸入實績('96)

(단위 : 백만불)

품 목	배전 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가열기	변환장치
'96	469	370	349	316	301	252	195
'97.1-6 (점유율)	259 (17.3)	161 (10.8)	176 (11.8)	168 (11.2)	143 (9.5)	127 (8.5)	80 (5.3)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14.7	-8.9	-5.7	1.6	0.6	38.5	-16.5

전극 및 자 석	애자류	전동공구	차단기	개폐기 부분품	전 압 조정기	기 타	계
188	38	72	70	26	19	265	2,931
108 (7.2)	55 (3.7)	35 (2.3)	31 (2.1)	13 (0.9)	8 (0.5)	129 (8.6)	1,496 (100)
9.0	135.8	12.0	-12.4	-2.8	10.4	-4.8	4.4

(자료) 〈표 2〉와 동일

애자류가 38백만불, 개폐기가 26백만불 그리고 전압조정기도 19백만불이 輸入되었다.

重電機器의 주요 輸入國은 일본, 미국, 중국, EU,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96년도 국별 收入額은 일본에서 總 輸入의 44.3%인 1,298백만불이 輸入되었으며, EU에서는 總 輸入의 21.8%인 639백만불이 輸入되었고 미국에도 總 輸入의 21%인 616백만불, 중국에서 111백만불, 대만에서 36백만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21백만불이 輸入되었다.

輸入이 가장 많이 증가한 國家는 중국으로

'95대비 71.4%가 증가하였고, 다음이 EU가 20.6%, 미국이 9.1%, 대만이 3.1% 증가하였다.

輸入이 감소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42.0%가 감소하였고 일본도 9.6%가 감소하였다.

일본이 비록 輸入은 감소하였지만 收入額은 여전히 월등하게 많아서 두번째로 輸入이 많은 EU의 2배나 되며, 일본, 미국, EU가 전체 輸入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輸入이 지난해에 71.4%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65.8%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업계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98년에는 중국이 두번째 輸入國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저가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重電機器 産業界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다면 거세게 밀려오는 중국제품과 국내업체들의 중국 현지 생산제품 輸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한 품목은 변

〈표 9〉 重電機器의 國別 輸入實績

(단위 : 백만불)

국 명	일 본	E U	미 국	중 국	대 만	싱가폴	기 타	계
'96	1,298	639	616	111	36	22	209	2,931
'97.1-6 (점유율)	631 (42.2)	277 (18.5)	334 (22.3)	77 (5.1)	16 (1.1)	12 (0.8)	128 (8.5)	1,496 (100)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0.7	-9.6	4.8	65.8	-12.9	21.8	31.1	4.4

(자료) 〈표 2〉와 동일

압기가 74.7%, 변환장치가 170.8%, 전동기
가 30.4%, 전극 및 자석이 300% 증가하였

고, 전기용접기, 전기로 및 가열기 등도 크
게 증가하였다.

〈표 10〉 中國에서 輸入이 증가한 品目

(단위 : 백만불)

구 분	변압기	전동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전기용접기	전기로 및 가열기
'95 (A)	35	18	5	1	0	0
'96 (B)	61	23	13	4	1	1.5
증감(B-A)	26	5	8	3	1	1.5
증가율(%)	74.7	30.4	170.8	300	126	148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이 감소한 품목은 전
기로 및 가열기가 전년대비 59.1%가 감소

하였고 배전제어장치가 3.6%, 개폐기가 18.
5% 감소하였으며 전극 및 자석과 전압조정

기도 감소하였다.

반기중 總 輸入額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97년 상반기중의 輸入現況을 살펴보면 상

％가 增加한 14억9천6백만불이 輸入되었다.

〈표 11〉

日本에서 輸入이 감소한 品目

(단위 : 백만불)

구 분	전기로 및 가열기	배전제어 장 치	개 폐 기	전극 및 자석	전압조정기
'95 (A)	285	213	17	127	6
'96 (B)	117	205	14	126	5
증감(A-B)	168	8	3	1	1
증감율(%)	-59.1	-3.6	-18.5	-1.1	-16.7

輸入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7%가 증가한 259백만불이 輸入되었고 다음이 발전기로 전년동기대비 5.7%가 감소한 176백만불이 輸入되었으며, 전기용접기는 1.6%가 증가한 168백만불, 전동기는 8.9%가 감소한 161백만불이 輸入되었고 변압기는 0.6%가 증가한

143백만불, 전기로 및 가열기는 38.5%가 증가한 127백만불, 전극 및 자석은 9%가 증가한 108백만불이 輸入되었다.

輸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애자류로 135.8%가 증가하였고 전기로 및 가열기가 38.5%, 배전제어장치가 14.7% 그리고 전동공구가 12% 증가하였다.

〈표 12〉

輸入 增加品目('97. 1-6)

(단위 : 백만불, %)

품 목	애자류	전기로 가열기	배전 제어장치	전동공구	전 압 조정기	전극 및 자 석	전 기 용접기
금 액	55	127	259	35	8	108	168
증 가 율	135.8	38.5	14.7	12.0	10.4	9.0	1.6

輸入이 감소된 품목은 변환장치가 16.5% 감소되었고 차단기가 12.4%, 전동기가 8.9

% 그리고 발전기가 5.7% 감소하였다.

〈표 13〉

輸入 減少品目

(단위 : 백만불, %)

품 목	변환장치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개폐기 부분품	기 타	계
금 액	80	31	161	176	13	129	1,496
증 가 율	-16.5	-12.4	-8.9	-5.7	-2.8	-4.8	4.4

(자료) 〈표 2〉와 동일

3. 結 言

우리나라 重電機器産業은 '90년대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착실한 성장을 하여 왔으나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生産이 증가되지 못하고 輸出도 활로를 찾지 못한채 輸入이 늘어만 가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通商産業部가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輸入製品 검사제도도 改善하여 우리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우리 업체들이 內需市場에 너무 안주하고 또 국내외에서 과다덤핑 수주경쟁으로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리업체 스스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전기공업진흥회를 중심으로한 각 분야별 조직체를 구성하여 輸入 重電機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輸出促進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체제도 구축하여 국제경쟁에 대처해 가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 글을 쓰게된 동기는 우리 업계가 자기가 生産하고 있는 품목이 需給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얼마가 輸出이 되고 있고 또 輸入이 얼마나 되며, 輸出에 대한 전망과 輸入이 미치는 영향 등 업계의 品目別, 國別 輸出入에 관한 분석과 輸出促進과 輸入代替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